

2021년 상반기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동향

최지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choijy@kinu.or.kr

I. 들어가며

본고는 올해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들어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시장 쌀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쌀가격은 경제적 충격에 비교적 민감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다.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충격 직후 쌀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 이러한 모습이 다시 관찰되고 있다. 둘째, 시장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장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였는데, 올해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셋째, 달러 표시 시장 쌀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시장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북한원화 표시 쌀가격은 4,000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표시 쌀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국경지역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또한 쌀가격 대비 옥수수의 상대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넷째, 시장 지표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환율의 지역 간 편차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 쌀가격의 지역 간 편차는 올해 6월 이후 확대되고 있다.

올해 북한시장의 곡물가격 변동성 심화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올해 식량유통 규모를 결정하는 지난해 식량생산이 자연재해로 크게 타격을 입었고, 국경봉쇄도 지속되고 있어 식량수입이 확대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환율의 경우 지난해 10월 단기간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무역이 재개되었다면, 수입을 위한 외화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원래 시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사실상 외화의 해외 유출입이

중단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올해 들어 북한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곡물 가격의 변동성 심화, 달러 표시 가격 상승은 식량부족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 스스로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¹⁾ 시장 지표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원배분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시장 지표의 변동이 북한경제 전체의 현황을 알려주지는 않으며, 지표 자체의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경제의 위기 징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장 지표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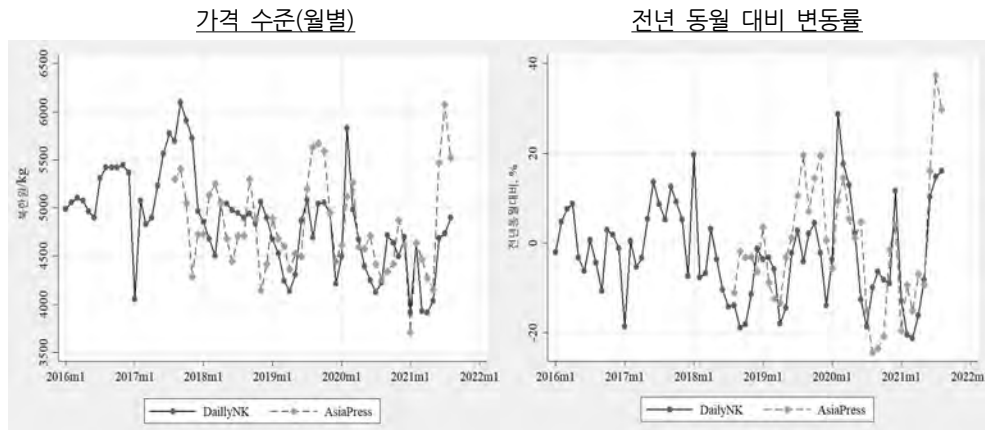
대북제재 강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장 쌀가격의 변동을 살펴보자. 시장 쌀가격은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년과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초에 상대적으로 급등한 바 있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데일리NK 기준 시장 쌀가격은 2017년 하반기와 2020년 초에 6,000원/kg 내외로 상승하였다. 동 기간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은 15~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초 급등하였던 시장 쌀가격은 곧 하향 안정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2/4분기 들어, 특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쌀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프레스 발표 기준 시장 쌀가격은 올해 7월 6,000원/kg까지 상승했다. 데일리NK 자료의 경우 평양과 신의주 지역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혜산 지역의 시장 쌀가격이 최근 6,000원/kg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의 평균 가격 기준으로, 올해 7~8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4~16%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시장의 쌀가격은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경제적 충격 직후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안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2020년 초 급등한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전반적인 식료품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1) 올해 6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3차 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어, 전원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노동신문』, 2021. 6. 16).
2) 본고의 분석에서 이용한 시장물가 자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최지영(2021)을 참조(최지영, 「시장의 물가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

불구하고 시장 쌀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시장 쌀가격이 비교적 빨리 안정화된 것은 2019년 곡물생산량이 양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곡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의 곡물생산량의 경우, 외부 추정치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발표치를 기준으로도 크게 감소했다. 최근 북한은 유엔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별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농진청 추정치(-5.2%)에 비해서도 훨씬 악화된 것이다.³⁾

[그림 1] 시장 쌀가격



주: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의 평균 가격이며, 두 자료원 모두 조사 시점의 자료를 월별 환산한 결과임(데일리NK는 2021. 8. 9. 기준, 아시아프레스는 2021. 8. 13. 기준).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다음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달러 표시 쌀가격의 상승이다. 북한원화 표시 쌀가격의 경우, 평양과 신의주 지역을 포함하는 데일리NK 기준 가격은 양강도, 자강도 지역을 포함하는 아시아프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데일리NK 자료도 달러 표시 쌀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년과 매우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그림 2]의 좌측 그림은 두 자료원의 달러 표시 쌀가격 추세를 보여주는데, 올해 들어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 모두 크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시장의 달러 표시 쌀가격은 0.8달러/kg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나,

3)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제시한 곡물생산량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곡물생산량은 각각 495만톤, 665만톤이며 2020년 552만톤이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70만톤이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13만톤이 감소하였다는 것인데, 연도 별 생산량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기후 변화나 비료 투입 증감 등으로 연도별 생산량 증감이 설명되는지, 곡물생산량 변동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발표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2020년의 곡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_21_VNR_Report_DPRK.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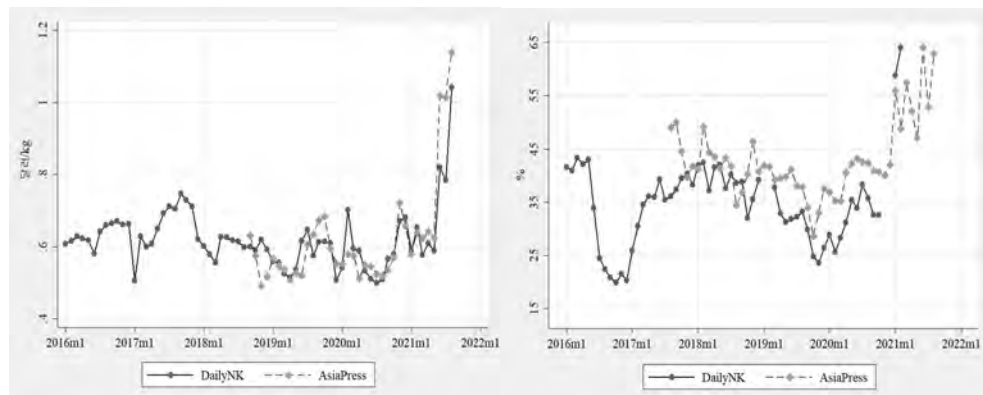
올해 6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강도, 자강도 등의 시장 가격 정보를 보여주는 아시아프레스의 경우, 올해 6월 이후 달러 표시 쌀가격이 1달러/kg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8월 초 데일리NK 가격 정보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다.

한편, 시장의 곡물수급 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옥수수의 쌀가격 대비 상대가격이 있다. [그림 2]의 우측 그림을 보면, 2016~20년 기간 중 옥수수의 가격은 쌀의 20~49%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그 비율이 5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봐도, 옥수수의 상대가격은 대체로 33~45% 수준에서 형성되었다.⁴⁾ 통상 식량의 수급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열등재인 옥수수보다는 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식량수급 여건이 악화되었거나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⁵⁾ 따라서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식량부족의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4분기 옥수수 상대가격은 전기 대비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옥수수 수확기가 8월 중순 이후~9월인 것을 감안하면 수확 직전 식량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 시장 곡물가격

달러 표시 쌀가격(월별)

옥수수 상대가격(월별)¹⁾²⁾



주: 1) 쌀가격 대비 옥수수 가격의 비율(%)을 의미함.

2)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의 평균 가격이며, 두 자료원 모두 조사시점의 자료를 월별 환산한 결과임(데일리NK는 2021. 8. 9. 기준, 아시아프레스는 2021. 8. 13. 기준).

3) 데일리NK는 지난 11월 이후 옥수수 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올해 1~2월 데일리NK 옥수수 가격은 저자가 수집한 자료임).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을 토대로 2013년 이후 분기별 흐름을 보면, 2014년 2/4분기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57%로 상승한 적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비율은 33~45%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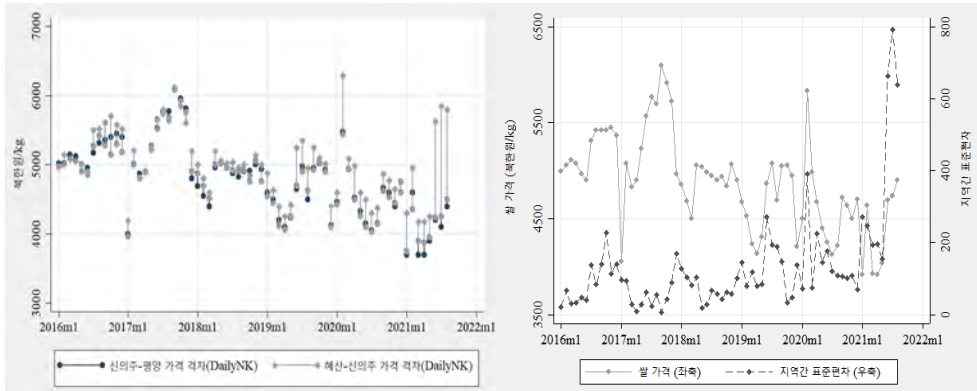
5) 권태진·남민지,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북한농업동향』, 제12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최근 들어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 참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을 봉쇄했던 지난 2월에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국경지역인 혜산 지역의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 가격으로 각 시점의 표준편차를 시산한 결과도 이를 잘 설명한다. 올해 들어, 특히 6~8월 지역 간 표준편차는 이례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시장환율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그림 3] 시장 쌀가격의 지역 간 격차

지역별 가격 추세(월별)

평균가격 추세와 지역 간 표준편차(월별)



주: 1) 쌀가격 대비 옥수수 가격의 비율(%)을 의미함.

2) 데일리NK는 평양, 신위주, 혜산 지역의 평균 가격이며, 두 자료원 모두 조사시점의 자료를 월별 환산한 결과임(데일리NK는 2021. 8. 9. 기준, 아시아프레스는 2021. 8. 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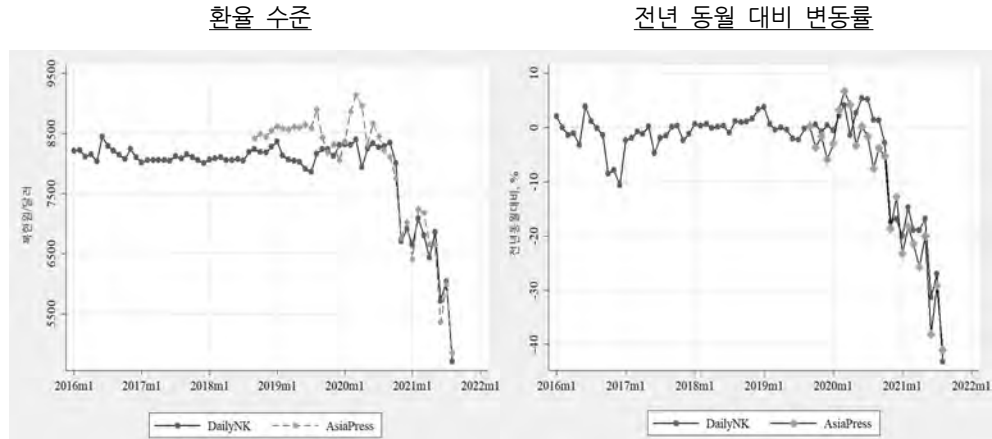
3) 데일리NK는 지난 11월 이후 옥수수 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올해 1~2월 데일리NK 옥수수 가격은 저자가 수집한 자료임).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III. 시장환율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확산 충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환율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2016년 이후 8,000원/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던 시장환율은 지난해 10월 6,500원/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5,000원/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약 10개월 동안 시장환율이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장기간 무역을 중단하면서 외화의 해외 유출입이 극히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관찰되고 있다.

[그림 4] 시장 북한원/달러 환율



주: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의 평균 환율이며, 두 자료원 모두 조사시점의 자료를 월별 환산한 결과임(데일리NK는 2021. 8. 9. 기준, 아시아프레스는 2021. 8. 13. 기준).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시장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⁶⁾ 각각의 가설들은 시장요인과 정책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시장환율의 변동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북한의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시장환율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어떤 경제주체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살펴보자.

환율의 평가절상은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의 내화 표시 가격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에는 불리하고 수입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하락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의 긍·부정적 효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경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존 수출의 90%가 중단되었고, 조만간 무역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 따라서 무역이 재개될 경우, 시장환율의 평가절상은 북한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북한과 같이 계획과 시장으로 이원화된 경제에서, 계획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최종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은 적다. 그러나 시장환율의 평가절상으로

6) 이석(2021)은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 당국의 脫달러라이선 조치에 따른 외화 수급의 혼란, 둘째, 재정충당을 위한 인위적인 시장환율 절상, 셋째, 시장물가 안정을 위한 평가절상이다. 최지영(2021)은 단기간 평가절상, 북한시장 외화시세의 국제시세와의 괴리, 북한의 공식환율 통제 발표 중단 등을 근거로 정책개입에 따른 인위적인 평가절상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시장환율 절상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고, 북한 당국의 재정 여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이석, 「〈총론〉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 최지영, 「시장의 물가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축소된다. 현재와 같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중가격의 격차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최종재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 계획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원화된 경제의 재정 당국은 이중가격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2002년 7.1 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은 공식환율을 시장환율 수준으로 평가절하시켜 이중환율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이루어진 시장환율의 평가절상은 재정 여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것이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의 결과라면, 기존과 같이 ‘공식환율의 평가절하’가 아닌 ‘시장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이중환율의 격차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가계의 입장에서 환율 하락은 수입재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반면, 외화저축을 보유한 가계는 그 가치가 축소되어 불리하다. 무엇보다 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심화된다는 것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시장환율의 평가절상은 계획부문 의존도가 높은 기업, 재정 당국, 수입 기업과 일반 가계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시장부문 의존도가 높은 기업, 수출 기업, 외화자산 보유 가계에는 불리하다. 북한 내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놓고 볼 때, 시장환율 하락은 최근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올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가의 통일적 관리’, ‘재정, 금융, 가격 공간의 활용’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새로운 북한식 개혁을 강조했던 제7차 당대회보다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경제관리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⁷⁾ 그러나 시장환율의 평가절상은 무역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역이 재개 되어 외화의 해외 유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시세와의 격차가 해소되면서 현재의 시장환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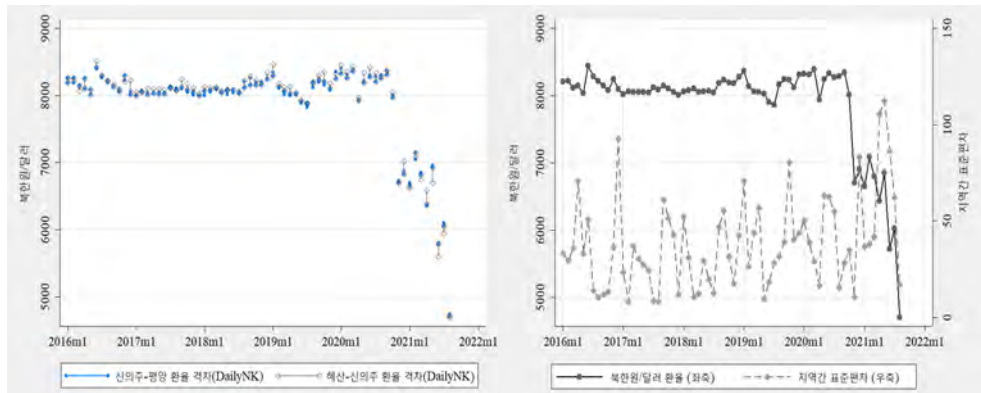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시장환율의 지역 간 편차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시장환율은 지역 간 편차가 시장 쌀가격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지역 간 편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5]의 우측 그림을 보면, 올해 3~4월경 시장환율의 지역 간 편차는 예년에 비해 더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시장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편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홍제환 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 분야」, 온라인 시리즈 2021-2, 통일연구원, 2021.

[그림 5] 시장환율의 지역 간 격차

지역 간 환율 추세(월별)

평균환율 추세와 지역 간 표준편차(월별)



주: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의 조사 시점별 시장환율을 월별로 환산한 자료임(2021. 8. 9. 기준).
자료: 데일리NK.

IV. 평가 및 전망

올해 상반기 북한시장의 관련 지표들을 통해 유추한 북한경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시장의 식량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쌀가격의 변동성은 대북제재 강화 직후,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유사하게 확대되고 있다. 달러 표시 쌀가격 상승, 옥수수 상대가격이 상승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식량의 지역 간 배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쌀가격의 지역 간 편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훨씬 확대되고 있다. 셋째, 북한시장 내 외화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장환율의 지역 간 편차도 확대되고 있다.

시장지표의 변동은 최근 북한 관련 여타 경제지표들의 추이와도 부합한다.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는 한국, FAO, 미 농무부 등 외부기관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북한이 직접 작성한 통계(VNR 보고서)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무역통계에서도 곡물, 식료품의 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하였으며,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 4.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표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외부 공급량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소득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충격,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시장 쌀가격과 시장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이는 북한경제가 아직까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두 지표는 이례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쌀가격 및 시장환율의 변동성과 지역 간 편차 확대는 북한경제의 위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시장 쌀가격의 경우,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 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역으로 판단되었다. 국가수매분을 이용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일부는 배급망을 통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 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옥수수 상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식량부족 상황이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식량위기는 저소득국가의 빈곤 계층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외부에서 관찰하기 무척 어렵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위기 징후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협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태진·남민지,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북한농업동향』, 제12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최」, 2021. 6. 16.
- 이석, 「〈총론〉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
- 최지영, 「시장의 물가·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
- 홍제환 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 분야」, 온라인 시리즈 2021-2, 통일연구원, 2021.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 〈웹사이트〉
- 데일리NK(<http://www.dailynk.com>, 접속일: 2021. 8. 16).
- 아시아프레스(<https://www.asiapress.org/korean/>, 접속일: 2021. 1. 16).